

지망대학 리스트에 취업률·수입 비교 분석을

대학선택과 전공 졸업 후 연봉관계

대학 입학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조 기지원이 끝나면 UC지원이 시작된다. 지난해 통 계에서 보았듯이 실로 어마어마한 지원자들의 원 서가 올해도 어김없이 예상된다. UC 지원이 끝나 면 사립대 정규지원으로 이어진다. 대입 지원시기 가 되면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할지 온 가족이 모 여 의견이 분분해진다. 어떤 자녀들은 그저 부모 결만 떠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괜찮다고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한다. 또 어떤 자녀들은 절대 로 친구들이 모두 있는 휴스턴에서 멀리 가지 않 겠다며 버틴다. 꿈을 가지고 동부의 대학을 선택 하라고 해도 왜 엄마는 나를 멀리 못 보내서 그러 시느냐며 반문하기도 한다. 이렇듯 여러 형태의 상 황에서 지원 대학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와 대우를 받는 것이 각양각색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더 오래 살아온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대학 졸업 후 연봉에 대해 서 관심이 많다.

일부 학부모들은 명문 대학 나와서 직장을 못 구해 집에서 뭇굴뭇굴 하는 애들도 많으 요. 마켓에서 캐시어 잡을 하는 애들도 많니 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고 대학을 안 간다(?). 그건 또 너무 오버하는 액션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전혀 무시할 수만 은 없는 것이 대학 졸업 후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할 대학 리스트를 만들 때 대 학 졸업 후 얼마나 취업이 잘 되는지, 각 대학 의 취업률도 살펴본다. 미국 내 대학들의 랭킹 은 졸업생들의 취업률 또한 고려할 대상에 속 한다. 대학 졸업 후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졸업생들이 사회 에 진출해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지 를 아는 것 또한 지원 대학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9월6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내 16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실업률이 73%로 떨어졌지만 특히 저임금 일자리들 경우 의 회복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저 임금 일자리들의 오너들은 가능하면 파트타임 으로 일자리를 메우려 하고 있다. 미국 내 실업 률은 7.3%이지만 대학 졸업생의 실업률은 8% 에 달하며 인기 없는 직종, 즉 건축학 등을 전 공할 경우 실업률은 무려 13%에 달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전공이 졸업 후 취업이 잘되고 높은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학과가 있고 연봉 역시 전공에 따라 크게 다르다. 얼 마 전 포브스지가 미국인들의 직업별로 평균



대학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취직에 큰 도움이 된다. 한 기술대학의 실습현장에서 학생들이 직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뉴욕타임스)

메디칼·법률·재정금융·엔지니어링 순 전공학과별 학비 투자액수 등 고려해야

연봉을 밝혔는데 최고 순위 직업은 역시 메디 칼 관련 직업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중·고교생을 둔 한국 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수가 자녀가 의사가 되 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탑 10에 의사직업 다음으로는 기업의 CEO, 재정 및 금융 전문 분야 및 법률 분야 그리고 엔지니어링 순위로 연봉을 발표했다.

직업은 그렇고 전공은 어떤가? 각 대학마다 강세를 보이는 전공에 따라 졸업생들의 취업 률과 연봉의 수준도 차이가 난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의료, 법률 분야는 취업 한 후 연봉 면에서는 매우 유리하지만 대학원 과정을 몇 년 동안 더 공부해야 하고, 게다가 이 기간에는 학교 재정지원이 거의 없어 부모 의 도움을 받거나 학교 측에서 혹은 정부에 서 돈을 빌려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의료 분야는 졸업 후 수입이 상당 수준이라서 몇 년 고생해서 대학원 다닐 때 빌 린 돈도 쉽게 갚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여 전히 인기가 있는 탓에 다른 전문 분야에 비 해 더욱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메디칼 분야 대학원 진학의 문은 갈수록 좁아 보인다.

이어서 한인들에게 의사 다음으로 인기였 던 법률 분야는 설명 대학원 졸업을 해도 예 전처럼 취업 사정과 연봉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수그러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도 보장되 고 또 연봉도 높은 편인 공학이나 재정분야 로 눈을 돌리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이렇듯 어느 대학이 졸업 후 취업을 수치도 아주 높고 연봉도 높게 받는다고 하면 그쪽으 로 지원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무 리 평균적으로 연봉이 높은 인기 전공을 택 해서 입학했는지라도, 대학 졸업 후에 스스로 독립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 제대로 된 진로를 택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졸업 후 훌 륭한 직장에 취직이 되어 최고의 연봉을 받으 며 일하는 졸업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니어들이 대학을 선택해 서 지원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각 대학의 졸 업 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졸업 후 연봉은 전공뿐만이 아니고 대학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졸업후 가장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대학

대학	0-5년	10-20년
1 다트머스	\$58,000	\$134,000
2 프린스턴	66,500	131,000
3 스탠포드	70,400	129,000
4 예일	69,100	126,000
5 MIT	72,200	126,000
6 노터데임	66,300	116,000
7 폴리테크닉 뉴욕 브루클린	62,400	114,000
8 라이스	64,000	110,000
9 콜гей트	52,800	108,000

■캘리포니아 내의 공립대학의 경우

대학	0-5년	10-20년
1 UC버클리	\$59,900	\$112,000
2 UCLA	52,600	101,000
3 칼스테이트 샌루이스오비스포	57,200	101,000
4 UCSD	51,100	101,000
5 UC 데이비스	52,300	99,600

■각 전공별 초봉과 10년후 중간소득순위

	초봉	중간소득
바이오 메디칼	\$63,800	\$97,800
바이오 케미컬	41,700	84,700
컴퓨터 사이언스	56,600	97,900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4,900	87,800
환경공학	51,700	87,800

**최근 발표된 대학별 초봉과 10년 후 연봉을 보면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 후 첫해 평균 연 봉은 \$58,300이었고 10년 후 평균 연봉 은 \$137,000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리버 털 아츠 칼리지인 하버머드가 첫해 평균 연 봉이 \$66,800이었고 10년 후 평균 연봉은 \$135,000이었다. 갈택의 경우 첫해 평균은 \$67,400이고 10년 후는 \$127,000으로 나타 났다. 다음은 해군 사관학교로 첫해 평균은 \$72,200이고 10년 후가 \$122,000 그리고 5 위로는 육사 졸업생으로 첫해가 \$76,000 그 리고 10년 후가 \$120,000이다.

잘 살펴보면 프린스턴 대학이 졸업 후 첫 해 평균 연봉에서는 다른 대학졸업생에 비해 다소 낮게 밝혀졌지만 10년 후에는 평균 연 봉이 가장 높아져 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받으려 고 비싼 학비 들여서 보냈나 하는 경우도 있 을 것이고, 좋은 수입을 위해 다시 대학원에 가서 더 좋은 스펙으로 직업을 찾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학원에 들어가서 투자 대비 수 익률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몇년을 투자해서 대학원을 졸업하니 그만큼 수입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더욱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 몇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 서 대학원에 진학할 때 쓸 돈도 모으고 어떤 전문직을 가지면 좋을지 사회 경험을 쌓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일하고 싶 어 하는 첫 번째 조건은 합리적인 연봉이다. 아무리 일이 힘들다 해도 높은 연봉이 보장된 다면 일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기업 들은 높은 연봉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채용하 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적성에 맞는 업무와 뚜 렷한 비전을 꼽았다. 다음 세 번째는 대부분 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서로 마음이 통 하는 동료들과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한다.



제이박
어드미션 마스터즈
856-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과 개선을 위한

음식과 건강 세미나

현재 태평양까지 유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한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전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사회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AM1650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전문가를 초빙,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일시 : 2013년 11월 9일 (토) 오전10:00~오후12:00

장소 : 주님의 영광교회 세미나 룸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강사 : 안은주 (식생활 상담가)

주최 : RADIO SEOUL

문의 : 라디오 서울 (323)935-0606

후원 : HQ Health, Inc. / HQ 산살

안은주 (Ahn, Eunju)

이화여대 사학과 졸
전)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Health Food Consultant.
· Certified Health Food Consultant 2004년
· 한국 건강문화 교육협회 예방용, 치유용, 해독용 식사법 상담 및 강의
·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건강교육 및 세미나 강사

현) 식생활 상담 및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동기부여 세미나 강사
· Nutri-Gene 대표
〈활동상황〉
· 해독식품과 해독에 대한 강의 및 컨설팅 (개인 및 단체)
· 해독용 식사법 강의
· 예방용 식사를 위한 파이토케미칼의 약리작용에 대응 세미나
·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건강 세미나
(단체 및 그룹 : 한국 문화원, 대학, 회사, 동우회, 교회 등등)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동기부여 세미나
-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Class 진행
· 유전자와 기능과 유전자가 원하는 식생활에 대한 강연.
· 개인별 유전자 결과에 따른 식이지도.
· Radio Seoul 건강이 있는 아침 방송 2003~2007
· Radio Seoul 건강이야기 2013~ 현